

## [첨부] IC단말기 전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

### 1 추진 배경 및 현황

- **(추진배경)** 카드복제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전법을 개정하여 '15.7.21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에 등록단말기\*(IC) 사용을 의무화

\* 금융위가 정한 기술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한 단말기(여신협회에 업무 위탁)  
→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 및 암호화로 보안성 높음

- 다만, 이미 단말기를 구입·사용중인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유예 → '18.7.20일까지 전환 필요
- 특히, 비용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조성한 기금(1,000억원)을 통해 단말기를 무상으로 전환하는 사업 추진중

- ① **대상** : MS단말기 보유 영세가맹점('15.7.21일 이전부터 사업 시작)  
② **재원** : 카드사 조성 기금 1천억원('18.4월말 기준 총 230억원 지원(예정))  
③ **사업자** : 경쟁입찰로 3개사 선정('15.7월)→ 사업자 확대(15개사, '17.2월)

- **(추진 현황)** '18.5.28일 기준 등록단말기(IC) 설치율은 89.8%  
(전체 가맹점 단말기 총 307만개 중 잔여 31.3만개)

- 영세가맹점(182만개)은 설치율 91.0%(잔여 16.3만개) 수준이며, 非영세가맹점(125만개) 설치율은 88.0%(잔여 15.0만개) 수준
- 영세가맹점 중 무상전환 사업 대상(20.7만개)의 설치율 86.5% (잔여 2.8만개)이며, 非사업 대상(161.3만개)은 91.6%(잔여 13.5만개)

<등록단말기 설치 현황('18.5.28일 기준)>

	대상 단말기 수	등록단말기 설치율	잔여 단말기 수
<b>전체</b>	<b>307만개</b>	<b>89.8%</b>	<b>31.3만개</b>
영세가맹점	182만개	91.0%	16.3만개
무상전환 대상	20.7만개	86.5%	2.8만개
非영세가맹점	125만개	88.0%	15.0만개

⇒ '18.7.20일 등록단말기 전환 유예기간 종료 → 전환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남은기간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

## 2 최근 IC단말기 전환 동향 분석

- ① (전체 가맹점) 등록단말기(IC) 설치율은 '17년말 71% 수준에 불과했으나, '18.5월말 현재 약 90% 수준까지 큰 폭으로 증가

	'17.12말	'18.1말	'18.2말	'18.3말	'18.4말	'18.5.28
등록단말기 설치율	71.1%	73.6%	76.4%	81.0%	86.4%	89.8%
전월 대비 증가	2.0%p	2.5%p	2.8%p	4.6%p	5.4%p	3.4%p

### < '18년중 IC 전환 가속화를 위한 주요 조치>

- ① (전환계획 마련 및 실적점검) 각 뱅사별로 월단위 전환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금감원을 통해 실적 점검(매주('18.1월) → 매일('18.3월)) 실시 ('18.1월)
- ② (뱅크에 인센티브 제공) 무상전환 사업 대가 신속 지급, 단말기 인증비용 감면 및 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뱅사의 등록단말기 전환 유인 제공 ('18.2월)
- ③ (명단공유로 경쟁요소 도입) 단말기 전환 실적이 부진할 경우('18.4말 90% 미달) 해당 뱅사가 보유한 가맹점 명단을 여타 뱅사에 공개하기로 뱅사간 협의 ('18.3월)
- ④ (특수사례 해결) 교체 비용부담이 크고 별도 보안조치가 가능한 특수사례(예 : 셀프주유소)에 대해, 교체 없이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('18.4월)

- ② (가맹점 유형별) 모든 유형의 가맹점에서 등록단말기 전환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, '18.5월말까지 누적 설치율은 다소 상이

- ① 영세가맹점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실적이 많이 개선되면서 '18.5.28일까지 누적된 설치율이 91% 수준까지 상승

- 특히, 무상전환 사업대상의 경우, '18.5.28일 설치율 86.5%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나, '17년말(48.7%) 대비 큰 폭으로 증가

- ② 非영세가맹점의 경우, '18.5.28일 설치율 88.0%으로 '18.3월말 (85.7%) 대비 설치율이 정체되는 모습

- 다만 대형 법인가맹점(단말기 다수 보유)들이 자체 경영 계획에 따라 '18.6월말까지 설치를 대부분 완료할 예정 → 실적개선 예상

	'17.12말	'18.1말	'18.2말	'18.3말	'18.4말	'18.5.28
영세가맹점	-	-	-	78.3%	86.1%	91.0%
무상전환 사업 대상	48.7%	65.5%*	70.4%	76.8%	82.8%	86.5%
非영세가맹점	-	-	-	85.7%	86.8%	88.0%

\* 사업대상 전수조사 및 검증 → 폐업·단말기 미설치 가맹점 약 4만개 제외 효과 반영

③ (행사별 전환실적) '17년말 대비 전체적으로 높은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누적 설치율은 행사별로 차이 (84%~100%)

① 설치율 90%를 초과 달성한 행사는 9개사(평균설치율 91.4%)

② 설치율이 90%에 미달한 행사는 5개사(평균설치율 86.9%)

### 3 향후 전망

□ 휴·폐업 가맹점 및 영업을 중단할 계획 등으로 교체 의사가 없는 가맹점들이 있어 설치율 100% 달성에는 물리적 어려움 존재

□ 이와 함께, 現 추세를 유지한다는 단순 가정시 전환유예 시점 (7.20일)에 전체 가맹점 설치율은 약 98%로 추정되나, 여러 제약 요인 감안시 보다 적극적인 추가 조치가 필요

① 미전환 가맹점들은 전국 각 지역에 산재 → 이전과 달리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전환하기 힘든 상황

② 다수의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법인가맹점은 교체비용이 높은 POS단말기를 주로 이용 → 전환을 최대한 지연할 유인

③ 남아있는 가맹점들은 카드거래가 적어\* 등록단말기 교체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→ 가맹점 설치거부 및 지연 요인

\* 미전환 영세가맹점의 경우 일평균 결제건수 3건 내외 (1개월 카드無실적 가맹점도 25%)

## 4 향후 추진 계획

### ① 가맹점 및 소비자 대상으로 홍보 및 제도 활동 강화 (카드사)

- 카드사 콜센터·SMS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 직접 교체 안내\* 및 홍보

※ (안내 내용) 유예 만료 기간 직전에 교체시 단말기 설치 수요 급증에 따라 기한 내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,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미전환 가맹점을 카드사별로 배분하여 책임관리 실시
  - 미전환 가맹점 영업 여부 전수 조사 후 해당 가맹점에 직접 방문하여 전환 필요성 및 위반시 처벌(과태료 2.5~5천만원) 등 안내

### ② 뱅사별 지역할당을 통해 단말기 전환업무 효율성 제고 (뱅크)

- 전환률이 낮은 지역내 다수의 가맹점·대리점을 보유한 뱅사가 해당 지역 가맹점의 단말기 전환을 책임지도록 할당 부여  
→ 각 뱅사는 각 할당된 지역을 중심으로 교체 작업 집중 진행

### ③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 적극적 사전 조치 (뱅크)

- 휴·폐업 가맹점 중 미신고 가맹점은 사업대상 가맹점에서 삭제하여 사업 효율성 증대
- 현재 영업중이나, 휴·폐업 계획 등으로 교체 의사가 없는 가맹점은 동의를 받아 단말기 회수·봉인 조치

### ④ 유예 종료일까지 뱅사별 전환 실적 일일 점검 지속 (금감원)

- 특히, 다수의 단말기를 보유한 대형법인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단말기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를 개별 점검

	IC 전환 가속화 주요 조치
~'17.6월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세가맹점 관리비 지원 등 전환사업 추진방식 개선('16.6월~)</li> <li>○ 전환사업자 확대(3개사→15개사) 등 사업구조 개편('17.2월~)</li> </ul>
'17.7월초 ~9월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설치실적 점검주기 단축 (분기→월별, '17.7월)</li> <li>○ 업그레이드로 전환가능한 단말기 우선 전환 유도(계속)</li> </ul>
'17.10월초 ~12월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단말기 인증제도·전환사업 개편 지속 논의('17.10~12월)</li> <li>○ 뱅사 간담회('17.12.15)를 통해, 뱅사·카드사 책임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, 가맹점 안내강화 방안 확정</li> </ul>
'18.1월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뱅사별 월별 설치 계획 제출('18.1월초)</li> <li>○ 전환사업대상 전수조사검증을 통해, 폐업가맹점 등 확인 후 제외('18.1월 중순)</li> <li>○ 단말기 인증비용 감면 및 인증절차 간소화('18.1.25일)</li> </ul>
'18.2월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카드사 콜센터 등을 활용하여 전환의무 등 안내('18.2월~)</li> <li>○ 전환사업 지급기준 재정비를 통해 반려율 감소('18.2월~)</li> </ul>
'18.3월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뱅사 간담회 및 뱅업계 협의를 통해, 설치율 90% 미달시 미전환 가맹점 명단을 뱅사간 공유하는 방안 확정('18.3월말)</li> <li>○ 중도참여 뱅사가 전환사업대가 지급 받지 못하는 가맹점 (30%) 명단공유 실시('18.3.22일)</li> </ul>
'18.4월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셀프주유소 등 유예기간내 전환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, 보안성 인증(여신협회)을 통해 별도 교체 없이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('18.4.30)</li> </ul>
'18.5월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뱅업계 협의를 통해, 설치율 90% 미만 뱅사의 미전환 가맹점 명단공유 실시('18.5.17~5.18)</li> <li>○ 관계업권에서 전환유예만료 대비 대응책 지속검토(계속)</li> </ul>

## ① (MS→IC 전환 종합대책 마련, '12.5월) 3단계 추진계획 수립

- ① 자동화기기(ATM)에서의 MS카드 현금거래 제한 → '14.2월 시행
- ② 자동화기기(ATM)에서의 MS카드 카드대출 제한 → '15.2월 시행
- ③ 신용카드 MS단말기를 IC단말기로 전환 → 진행 중

## ② (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, '14.3월) IC단말기 전환을 위해 영세 가맹점\*은 카드사에서 기금을 조성(1천억원)하여 지원키로 결정

\* 여전법 시행일('15.7.21) 이전부터 영업중이던 영세가맹점 한정

## ③ (IC단말기 의무화, '14.12월) 여전법 개정을 통해 금융위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단말기(IC단말기)의 등록 및 사용 의무화

\* (신규 단말기) '15.7.21 시행, (기존 단말기) '18.7.21 시행

## ④ (IC단말기 교체 사업자 선정, '15.7월) 경쟁입찰 실시(여신협회, '15.5월) → 한국스마트카드·한신네·금결원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('15.7월)

## ⑤ (홍보 강화, '16.2월~) TV 등 공익광고, 리플렛 제작·배포(20만부), '온라인 키워드 검색' 등을 통해 가맹점의 자발적 참여 유도

## ⑥ (사업추진 방식 개선, '16.6월~) IC단말기 전환 영세가맹점 관리비 지원, 사전계약 허용, 3개사업자 추진실적 평가 도입 등

## ⑦ (사업 개편, '17.2월~) 사업자 확대(3개 VAN사 → 참여희망 모든 VAN사(15개사)) 및 VAN수수료 현실화\*(40~57원/건 → 75원/건)

\*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었던 VAN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여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고, VAN사에 신규참여 유인 제공

## ⑧ (사업 개편, '18.1월~) 전환사업에 사용한 단말기를 영세가맹점 전환 한정 재활용 허용, 지급절차 간소화\*, 인증비용 감면 등

\* 전환 대가 지급주기 단축(45일→30일), 반려사유 정비·공개 및 소명절차 간소화 등으로 반려율 감소(21%→5%)